



BESPOKE 그랑데 건조기 AI 22kg

BESPOKE 그랑데 건조기 AI 22kg

편리하고 혁신적인 의류 관리

CHECK POINT

- ✓ 세탁물 재질을 4종류로 알아서 분류하고 관리해주는 AI 맞춤건조
- ✓ 이불 부피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건조하는 AI 이불건조
- ✓ 건조 종료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 세탁물을 보송하게 유지하는 오토 오픈 도어
- ✓ 옷감 손상 걱정 없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 저온 제습 기술
- ✓ 온습도 센서로 세탁실 습도를 감지해 최적의 습도를 맞춰주는 AI 공간제습



4종류로 알아서 분류하고 건조하는 'AI 맞춤건조' 기능

삼성전자의 2024년형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의류 관리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최대 건조 용량인 22kg을 갖춰 4인 이상 가족과 같이 세탁물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이다.

2024년형 제품은 건조 용량을 늘리고 AI 맞춤건조 기능을 강화했다. 히트펌프 관련 설계와 건조 알고리즘을 최적화해 이전 모델 대비 건조 용량을 키우면서도 성능을 확보했다. AI 맞춤건조를 강화해 건조기 내부 온도와 습도 감지는 물론 마신러닝 기반으로 세탁물의 재질을 면, 데님, 타월, 합성섬유 등 4종류로 알아서 분류하고 그에 맞춰 최적의 코스로 건조한다. 청바지처럼 두껍고 잘 마르지 않는 의류는 구석구석 더 꼼꼼하게 건조하며 수건류는 보송보송하게 건조한다. 옷감의 무게와 종류를 구분해서 감지하는 AI 기능을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한국표준협회의 AI+ 인증을 획득했다. AI 이불코스로 AI가 알아서 이불 부피를 인지해 360도 에어홀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얇은 이불은 더 빠르게, 두꺼운 이불은 꼼꼼하게 빈틈없이 말려주어 사계절 이불에 맞춰 똑똑하고 섬세하게 맞춤 건조한다(자사 시험 결과로 실험 결과는 탈수 정도 및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의 저온 제습 기술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이 탑재되어 건조 종료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준다. 제품 내부에 습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세탁물을 보송하게 유지해준다. 또한 AI 공간 제습 기능이 있어 온습도 센서로 세탁실 온습도를 감지해 최적의 습도를 알아서 맞춰준다.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의 저온 제습 기술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낮은 기온으로 인해 건조기 성능이 영향을 받는 환경에선 히터로 열교환기를 예열한 뒤 히트펌프로 저온 건조하는 하이브리드 건조 사이클을 적용해 많은 양의 빨래도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빠르게 건조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서 AI 절약모드 설정 시 건조기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5% 줄일 수 있다(AI 절약모드는 스마트싱스에서만 지원하며, 스마트싱스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CEO INTERVIEW

한 중 회 삼성전자(주) DX부문장(부회장)



인공지능(AI)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가전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가 2024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I 기능을 바르게 가전제품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12개 제품 모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가전과 스크린을 융합한 '스크린 에브리웨어(Screens Everywhere)'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향하는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모든 가전을 하나로 연결해 AI가 에너지 사용량까지 똑똑하게 절감해주고,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진정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능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일상은 물론 환경까지 바꾸는 기업이 되겠습니다.